

가 가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과 해당 저자의 소유입니다.
비상업적,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자기 앞의 생

국립극단

La Vie Devant Soi
by Romain Gary



국립극단 - 자기 앞의 생 La vie devant soi

원작 로맹 가리 Romain Gary

(필명 에밀 아자르 Émile Ajar)

각색 자비에 제이아르 Xavier Jaillard

연출 박혜선

본 공연은 2007년 프랑스 파리의 마리니극장(Théâtre Marigny)에서
초연되었으며, 본 희곡의 저작권은 Mercure de France에 있으며,
공연 관련 저작권은 Editions Gallimard에서 관리합니다.



일정

2019년 2월 22일(금) - 3월 23일(토)

장소

영동예술극장

주최·제작

(재)국립극단

각색자 소개 및 인터뷰	자비에 제이아르	2
연출가 인터뷰	박혜선	5
줄거리		8
출연진		10
원작자 소개	로맹 가리	14
작품 이해돕기-1	작품 속 단어 해설	18
작품 이해돕기-2	불가능한 가족, 가능한 환상 · 이광진	20
작품 이해돕기-3	로맹 가리는 왜 에밀 아자르가 되었는가 · 백선희	22
무대디자인 스케치		25
스태프		28
만드는 사람들		29



자비에 제이야르 Xavier Jaillard

자비에 제이야르는 프랑스 태생으로, 한때 프랑스와 독일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으나, 현재는 작가 겸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학에 대한 큰 애정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길을 걸기로 결심한 그는 프랑스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인 에디 바클레이(Eddie Barclay) 팀의 일원이 되어 작곡가로 활동한다. 몽마르트와 피갈거리 근처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스튜디오를 “King Lear”라는 이름의 극장으로 변경하여 신인 배우들과 유명 인사들이 출연하는 코미디쇼와 콘서트를 기획하였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파트너이자 연기 스승인 프란시스 블랑셰(Francis Blanche)가 죽고 난 후, 파리와 프랑스 전역을 돌며 몰리에르(Molière)나 외젠 라비슈(Eugène Labiche), 페도(Georges Feydeau) 등의 고전 희곡들을 연극으로 제작하고, 자신의 희곡을 집필하며 현재까지 20편 이상의 연극을 선보였다.

2007년 9월 20일에는 그가 각색하고 ‘의사 카츠’역으로 출연했던 <자기 앞의 생>이 파리의 마리니 극장(Théâtre Marigny)에서 초연되었고, 이후 외브르 극장(Théâtre de L'Oeuvre)으로 옮겨와 장장 18개월 동안 공연되었다. 프랑스 공연 후에는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그리스, 일본, 이스라엘 등 다양한 나라에서 120여 회의 해외 투어 공연을 하였으며, 2008년 몰리에르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각색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프랑스의 알퐁스 알레 아카데미(L'Académie Alphonse Allais)의 총장을 맡아 프랑스 희극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신작 희곡과 소설을 집필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나를 웃게 하는 것, 나를 울게 하는 것(What makes me laugh, what makes me cry)>이라는 제목의 1인 희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기 앞의 생〉이 프랑스에서의 초연 이후 오랜만에 한국에서 첫 공연됩니다.

한국관객들에게 인사의 말과 함께 공연이 되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한 작가의 작업이 다른 나라의 관객들과 문화권에 번역이 되고 소개되는 것은 작가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한국의 탈춤이나 판소리 같은 전통예술을 보면 한국의 고대예술문화는 고대 그리스 극장문화와 매우 밀접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는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공연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물리적인 거리는 매우 멀지만, 두 문화권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랑스 관객들은 많은 한국의 공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 공연들을 접할 수 있고, 2016년에는 Focus Korea 쇼케이스를 통해 무용 공연들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각색하고 출연했던 작품이 한국의 서울에서 공연되는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앞의 생〉은 18개월 동안 프랑스에서 공연되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순간들이 있었는지요?

짧게 대답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웃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관객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라마티유 축제(Festival de Ramatuelle)라는 프랑스의 유명 공연예술제에 초청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공연이 끝나고 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로맹 가리의 소설 「자기 앞의 생」을 각색하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요?

로맹 가리의 소설 「자기 앞의 생」은 말 그대로 명작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소설은 늙은 창녀와 그녀가 돌보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는 프랑스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프랑스나 파리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년은 세상로부터 잊혔고 삶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 앞의 생」은 세상 어디에도 어떤 사회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엄마-아들의 관계가 「자기 앞의 생」에서는 유대인 여인 로자와 아랍인 아이 모모를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실제 사회에서 출신, 인종, 피부색, 종교 등으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로자와 모모는 다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주제가 마음에 들어 각색하게 되었습니다.

각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소설을 쓰는 것과 희곡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작업입니다. 소설은 읽기 위한 것이라면, 희곡은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로맹 가리가 사용했던 언어들만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저는 그런 단어나 문장을 관객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무대 위의 언어들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로맹 가리가 썼던 문장들을 존중하면서도 같은 의미, 같은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어들로 새롭게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관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점은 원작 「자기 앞의 생」은 1975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0년이 흐른 시점에 쓰여졌는데 이때는 아직 전쟁이 남긴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기 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 말고는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무대 위에 작품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몰입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작가로서 그저 여러분들 모두가 눈 앞에 펼쳐지는 연극을 믿고 몰입하기를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공연을 위해 노력했던 연출가나 배우,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바라는 것은 무대 위의 인물들이 울고 웃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박혜선

인터뷰 진행·정리 김일승_공연 칼럼니스트

원작소설은 작가보다 작품이 더 잘 알려진 소설입니다.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한 후 소설을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대학생 필독서라 하여 어렸을 때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 하면서 힘들게 읽었습니다. 삶의 힘든 측면을 지나치게 표현해서 솔직히 싫어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작품의 연출을 맡아 다시 읽게 되었는데 그동안 나이를 먹어서인지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인생 별거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고통의 시간들을 거쳐보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연극에서 이런 고통만 표현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힘든 일상이 반복되지만 오밀조밀 소소한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찰나지만 재미있는 순간이 스쳐가기도 하고. 삶이 주는 찰나의 사소한 행복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혜선—연출 Heo Seon Sunny Park

연극 <우쿠리 닛:녀노소> <신의 아그네스> <어떤 접경지역에서는>
<리얼 게임> <피카소 훔치기> <억울한 여자> <음악극 에릭사티>
<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웰즈로드 12번지> <가을 소나타>
외 다수

수상 2013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제45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08 공연 베스트7’ <억울한 여자>

연출님이 작품을 선택한 게 아니라, 국립극단이 연출님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섬세한 감정표현이 중요한데, 제가 그런 작품을 많이 한 경험이 있다 보니 섬세한 감정 연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맡긴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의 심리상태를 표현했던 <억울한 여자>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준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제 전작들을 보면 사회적인 문제, 거대담론을

“

중요한 건

로자의 캐릭터 자체보다

로자와 모모의

관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문제로 풀어내 은유했던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로 있는 극단명인 ‘사개탐사’도 ‘사회와 개인을 탐사하자’는 의미에서 지은 겁니다. 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버림받은 삶, 남루한 삶을 공감 가는 삶으로 표현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를 연출로 선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로자를 속정 깊은 호랑이 할머니로 상상했는데, 연습을 보니 인자한 할머니 같아 보였습니다.

로자를 호랑이 할머니로 그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온 개인의 역사가 있어 투박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로자의 캐릭터 자체보다 로자와 모모의 관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1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쌓인 애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모와 로자가 인생의 친구 같기도 연인 같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화학작용이 발생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로자 역의 두 배우에게, 아니 모모까지 세 배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캐스팅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로자 역으로 양희경, 이수미 두 배우가 더블 캐스팅되었는데, 모모가 두 배우와 케미를 맞추려면 두 로자의 톤이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톤을 맞추라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로자가 있으니 각자의 로자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마도 두 배우가 격양된 흥분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미세한 톤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모 역의 오정택 배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모 또한 처음에 10살로 보였다가 나중에 14살로 보여야 하는데, 거기서 오는 고충도 있을 듯합니다.

모모는 파리 외곽 빈민가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아이입니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어찌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꼬마철학자 같은 인물인데, 그래서 성인배우가 말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모 역으로 분한 오정택 배우가 부담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열여덟, 아홉 살 청년도 아니고, 소년이니깐요. 연습을 하면서 오정택 배우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자가 “넌 열 살이야”라고 하면 관객들이 많이 웃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꾀꿉이 버텨야 한다고. 웃든 놀라든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긴 프랑스 나이로 14살이면 우리 나이로 중2, 중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모가 더 어른스러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세상 물정을 다 안다 해도 겪어서 아는 사실과 들어서 아는 사실 사이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세상사 다 아는 듯한 인상을 주어야 하지만, 반대로 로자가 유테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인상도 주어야 합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화술을 선보여야 할지 배우와 많은 대화를 통해 치열하게 고민

중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모모는 자기가 열 살이라고 알았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열네 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과 몸에 배어있던 행동 사이에 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도록 각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작소설을 보면 모모가 주인공인데, 연극은 로자가 주인공 같은 느낌입니다.

극의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로자의 감정선을 따라갑니다. 로자가 첫 번째 발작을 일으키기 전까지, 관객은 로자의 감정선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다 발작이 시작되면서 모모의 감정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픈 로자로 인해 모모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거나 애써 로자를 위로하거나 하면서 모모의 성장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모모의 친아버지가 후반부에 나오는 것도 그 이유라고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이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을 딱 서너 사람의 이야기로 각색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니 희곡과 실제 연극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이나 희곡이나
연극의 주제는 일맥상통합니다.

사랑 없는, 사랑해줄
누군가가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원작 소설에는 도시 빈민가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다시 몸을 팔러 나가는. 다양한 인간군상이 등장합니다. 사실 모모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이런 주변인물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 희곡에선 등장인물이 적어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워 모모와 로자의 대화 속에만 등장하는 포주 은다 아메데라는 인물을 무대 위에 등장하도록 연출했습니다. 사실 더 적극적으로 채워 넣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소설을 각색한 자비에 제이아르에게 저작권이 있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희곡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보여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원작에 충실한 연출가로 알고 있습니다. 원작 재현이 아닌 희곡에만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소설이나 희곡이나 연극의 주제는 일맥상통합니다. 사랑 없는, 사랑해줄 누군가가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있음으로 해서 보잘 것 없는 삶이 얼마나 찬란해질 수 있는지, 모모로 인해 역경의 삶을 살던 로자의 노년이 얼마나 반짝반짝한 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서로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황량하고 힘든 삶이 지속되었을까, 그런 점에서 모모와 로자가 조금 더 애인 같아 보이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이야기로, 인생살이라는 게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작품은 로자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던 이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보여줍니다. 그 한 장면을 위해 연극적으로 힘을 많이 들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이 충분히 여운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파리 슬럼가의 허름한 아파트.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로자와 그녀에게 맡겨진 열 살 소년 모모가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 없는 7층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일은 두 사람이 살아온 인생만큼 쉽지 않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모모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매일 매일이 새롭다! 거리를 오가는 다양한 사람들, 사랑과 꿈에 대한 이야기들, 로자 아줌마와의 소소한 대화는 외로운 소년의 삶을 살며시 지탱해준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숨겨왔던 로자 아줌마의 비밀이 밝혀지고 모모의 아버지라는 남자가 불쑥 찾아오는데...

The story takes place in an old apartment building, located in a slum near Paris. Madame Rosa takes care of Momo and other homeless children. To use stairs to reach the seventh floor every day without an elevator is as difficult as the life they have lived in. However, the world presents something new every day to Momo. Small chats, which are stories of love and dreams, with Madame Rosa instill hope into lonely Momo. One day, Madame Rosa's secret is revealed and someone himself claims to be Momo's father.





양희경 Yang Hee Kyung

로자 (더블캐스팅) Madame Rosa

연극

- 〈쥐뿔〉 18 | 보일 | 명보아트홀 다운홀
- 〈순이삼촌〉 13 | 순이삼촌 | 총무아트센터 중극장블랙
- 〈민자씨의 황금시대〉 08 | 민자 | 대학로 예술마당
- 〈높은 창녀의 노래〉 05-06 | 창녀 | 우림청담시어터, 학전블루소극장 외

뮤지컬

- 〈사운드 오브 뮤직〉 13-15 | 원장수녀 | 유니버설 아트센터
- 〈어디만큼 왔니〉 11-12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 〈피맛골 연가〉 10-11 | 행매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년센세이션〉 10-11 | 메리레지나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언제나 봄날〉 05 | 한전아트센터
- 〈브로드웨이 42번가〉 04 | 매기 | 팝콘하우스 외

영화

- 〈고령화 가족〉 〈달콤한 거짓말〉 〈스카우트〉 〈좋은 걸 어떡해〉 〈내일로 흐르는 강〉 외 다수

수상

- 2014 제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DIMF 어워즈 대구 공연작 부문 올해의 스타상
- 2000 KBS연기대상 조연상
- 1995 제19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제1회 현대연극상 연기상

[로자의 아이들]

모세 바나니아 비엣 살리마 앙투안

로자는 모모 외에도 모모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문 유대인 꼬마 모세, 엄마가 다시 데려간 흑인 꼬마 바나니아, 음식점을 하는 앙부모에게 입양된 베트남계 꼬마 비엣과 살리마, 잠시 머문 진짜 프랑스 꼬마 앙투안 등 아이들을 보살폈다.



이수미 Lee Soo-mi

로자 (더블캐스팅) Madame Rosa

연극

〈텍사스 고모〉 18 | 멕시코 아줌마, 소철할머니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인근 여인 갑 | 백성희장민호극장

〈처의 감각〉 18 | 여인숙 팬션주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3월의 눈〉 18 | 중국인 관광객 | 명동예술극장

〈햄릿릿햄〉 17 | 햄릿 | 아라리오뮤지엄 공간소극장

〈손님들〉 17 | 3단지 길고양이 | 예술공간 오르다

〈반신〉 14 | 우숙이 고모 외 | 명동예술극장 외

〈마늘먹고 쓱먹고〉 12 | 공할머니 | 명동예술극장 외

〈맥베드〉 12 | 레이디 맥베드 | 이탈리아 팔레르모극장

〈템페스트〉 11 | 에어리얼 | 영국 에든버러 왕립극장 외

외 다수

수상

2019 제55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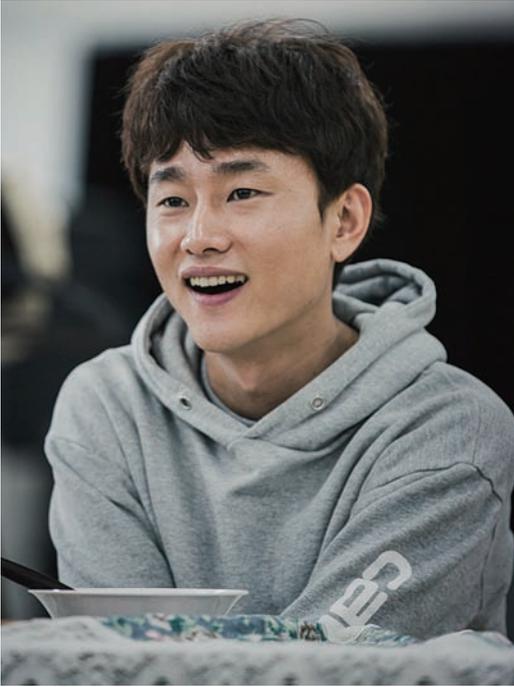
[로자의 이웃들]

자옘 형제

이삿집 운반일을 하는 4형제.

롤라 아줌마

세네갈에서 권투 챔피언이었으나 프랑스로 넘어와서는 여장을 하고 쇼에서 몸을 팔고 있음.



오정택 Oh Jeong-taek

모모(모하메드) Momo(Mohammed)

연극

- 〈톡톡〉 17 | 밥 | 대학로 테오엠2관
 -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17 | 빠샤 | 아트원씨어터3관
 - 〈킬 미 나우〉 17 | 라우디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 〈유도소년〉 17 | 코치 | 수현재씨어터
 - 〈글로리아〉 16 | 마일즈 손 라샤드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히스토리 보이즈〉 16 | 럽지 | 백암아트홀
 - 〈복도에서, 미성년으로 간다〉 15 | 다역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변신이야기〉 15 | 다역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타조소년들〉 14 | 로스 | 국립극단 소극장 판
 - 〈노란달〉 13 | 리 | 백성희장민호극장
- 외

[모모의 친구들]

알룸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청소부로 일하는 시간 외에 거리에서 불을 삼키는 묘기로 돈을 번다.

르 마우트

모모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로 마약을 한다.

마리즈 아줌마

피갈 광장에서 일하는 창녀.

하밀 할아버지

양탄자 행상인. 모모에게 많은 걸 알려주었지만, 나이가 들어 빅토르 위고와 코란을 혼동한다.

나딘 아줌마

직업이 성우로, 길에서 만난 모모를 더빙실에 데리고 간다.

아르튀르

모모가 거리에서 어릿광대짓을 하기 위해 만든 친구.



정원조 Jeong Won-jo

카츠 의사 Doctor Katz

연극

- 〈록앤롤〉 18 | 나이젤 | 명동예술극장
- 〈오슬로〉 18 | 야이르 허시펠트 | 명동예술극장
- 〈사물함〉 18 | 재우 | 국립극단 소극장 판
- 〈더 헬멧〉 18 | 헬멧A | 아트원씨어터 3관
-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7 | 재엽 | 예술의전당 소극장
- 〈글로리아〉 17 | 로린 | 아트원씨어터3관
- 〈생각은 자유〉 17 | 재엽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베헤모스〉 17 | 오검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 〈고래행릿〉 16 | 행릿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 〈잔치〉 16 | 장진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외 다수



김한 Kim Han

유세프 카디르 Youssef Kadir & 은다 아메데 N'Da Amédée

연극

- 〈록앤롤〉 18 | 페르디난드 | 명동예술극장
- 〈페스트〉 18 | 조제프 그랑 | 명동예술극장
- 〈3월의 눈〉 18 | 일본인관광객 | 명동예술극장
- 〈사천의 착한 살인〉 17 | 센테 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빛의 제국〉 16-17 | 위성곤 | 명동예술극장 외
- 〈겨울선인장〉 15 | 가즈야 | 윤당아트홀
- 〈키사라기 미키짱〉 12,15 | 이에모토 | 대학로예술마당
- 〈가을반딧불이〉 14 | 분페이 | 대학로예술극장 외
- 외

영화

- <달콤한 인생> 외

드라마

- <미스터 선사인> 외



사진: Jacques Robert (c) Editions Gallimard

로맹 가리

Romain Gary
1914~1980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계 프랑스 작가.

본명은 로맹 카체프(Romain Kacew)로 191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무명배우인 어머니와 사업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로맹 가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와의 불화로 인해 떠나고, 홀어머니 아래에서 리투아니아 빌나,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프랑스 니스로 이주하게 된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공군사관학교로 진학하였지만, 당시 프랑스에 만연했던 유대인 차별로 인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장교로 임관하지 못한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유 프랑스(La France Libre) 산하 공군에 자원입대한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공군 조종사로 복무한 뒤 해방무공훈장과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고, 군인 시절의 무공과 경력으로 프랑스 외무부에서 일하게 된다. 또한 전쟁 동안의 경험과 영감을 바탕으로 첫 장편소설 「유럽의 교육」을 발표해 비평가상을 수상하며 일약 유명작가가 된다.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온 로맹 가리는 1956년 「하늘의 뿌리」로 공쿠르 상을 수상한다. 그가 발표하는 작품들은 독자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환호에 높은 판매부수를 기록했고 최고 권위의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불안정한 문법이나 단어 선택 등의 이유로 비평가들에게 혹독한 평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이방인으로서 프랑스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불안감으로 일생을 살아온 로맹 가리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비평가들의 비평과 비난에서 자유롭기 위해 ‘샤탕 보가트’, ‘포스코 시니발디’, ‘에밀 아자르’ 등의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했고, 본명인 로맹 가리로 발표하는 소설들과 문체, 주제의식의 차이를 보이며 동일 작가의 작품이 아닌 척 했다. 1975년에는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자기 앞의 생」이 공쿠르상 후보에 오르게 되고, 당시에는 자신의 조카 폴 파블로비치를 통해 에밀 아자르라는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게 하여 로맹 가리는 생애 두 번째 공쿠르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후 1980년 자신의 집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고, 사후 1년 뒤 그의 유서를 통해 로맹 가리가 에밀 아자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문학계에 큰 파문을 남겼다.

	1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생.▪ 무명배우인 어머니와 사업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로맹 가리가 태어나기 전에 떠남.▪ 이후 어머니를 따라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거쳐 1927년 프랑스 니스에 정착.
「죽은 자들의 포도주(Le Vin des Morts)」 발표	1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Aix-en Provence) 지역 법과대학으로 진학
	1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도시로 진학을 희망함.▪ 파리 법과대학으로 진학
단편 「폭풍우(L'Orage)」 발표	1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인으로 귀화
	1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교 양성 과정을 수료한 뒤 공군사관학교로 진학하지만 동기들 가운데 유일하게 임관하지 못함.
	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한 후, 당시 국방차관 샤를 드 골을 중심으로 한 ‘자유 프랑스’ 정부 공군에 자원 입대.*군대에서 사용할 별명으로 로맹 가리(Romain Gary)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
	19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 니나 카체프(Nina Kacew) 암으로 사망.
	1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전 중에 복부를 관통당하는 부상을 당했으나, 끝까지 임무를 완수.
소설 「유럽의 교육(Éducation européenne)」 발표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방무공훈장을 받음.▪ 연상의 여인 레슬리 블렌치(Lesley Blanch)와 첫 번째 결혼.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세계대전 종전▪ 공군 조종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음▪ 이후 프랑스 외무부 소속으로 불가리아에서 근무.▪ 「유럽의 교육」으로 프랑스 비평가상을 수상

소설 「튤립(Tulipe)」 발표	1946	
소설 「커다란 탈의실(Grand Vestiaire)」 발표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베른 소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
소설 「낮의 색깔들(Les Couleurs du Jour)」 발표	1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워싱턴 소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대변인이자 언론담당 공보관’으로 근무
소설 「하늘의 뿌리(Les Racines du Ciel)」 발표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볼리비아 소재 프랑스 대사관 영사로 근무 「하늘의 뿌리」로 첫 번째 공쿠르상 수상
포스코 시니발디(Fosco Sinibaldi)라는 필명으로 소설 「비둘기를 안은 남자(L'homme à la colombe)」 발표	1958	
소설 「새벽의 약속(La Promesse de l'aube)」 발표	1960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인 레슬리 블랜치와 이혼 당시 재직하던 외교부에 10년 휴직을 신청하면서 외교관으로의 경력을 마무리.
단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Les oiseaux vont mourir au Pérou)」, 「우리 고매한 선구자들에게 영광 있으라(Gloire à nos illustres pionniers)」 발표	1962	
소설 「레이디L (Lady L)」 발표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배우 진 세버그(Jean Seberg)와 결혼 아들 알렉상드로 디에고 가리(Alexandre Diego Gary) 출생
	1965	
	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를 직접 감독하여 영화로 제작(아내 진 세버그가 주연을 맡음) 영화 개봉 이후 진 세버그와 법적으로 이혼. (이후 몇 년간 사실혼 관계를 지속)
소설 「게리 쿠퍼여 안녕(Adieu Gary Cooper)」 발표	1969	
소설 「흰 개(Chien Blanc)」 발표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 세버그와의 사이에서 딸 니나 하르트 가리(Nina Hart Gary)가 태어나지만 생후 2일만에 사망.

소설 「유로파(Europa)」 발표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Kill! Kill! Kill!>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맡음.
소설 「마법사들(Enchanteurs)」 발표	1973	
샤탕 보가트(Shatan Bogat)라는 필명으로 소설 「스테파니의 얼굴들(Les têtes de Stéphanie)」 발표 에밀 아자르(Émile Ajar)라는 필명으로 소설 「그로 칼랭(Gros câlin)」 발표 자신의 본명으로는 소설 「밤은 고요하리라(La nuit sera calme)」 발표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로 칼랭」으로 에밀 아자르가 르노도상 후보에 오르자 수상 거부 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보냄.
에밀 아자르의 이름으로 「자기 앞의 생(La Vie Devant Soi)」 발표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카 폴 파블로비치(Paul Pavlowitch)로 하여금 에밀 아자르인 척 연기하게 함. ▪ 「자기 앞의 생」으로 에밀 아자르가 공쿠르 상을 수상
본명으로 소설 「여인의 빛(Clair de Femme)」 에밀 아자르로 「가짜(Pseudo)」 발표	1976	
에밀 아자르의 이름으로 「솔로몬 왕의 고뇌(L'Angoisse du roi Salomon)」 발표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 세버그가 실종되고 8일 뒤 차에서 사체로 발견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완전히 표현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권총을 이용해 자살.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 파블로비치가 언론에 에밀 아자르는 로맹 가리라는 사실을 공개 ▪ 로맹가리가 죽은 지 1년 후, 에밀 아자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게 된 이유를 작성해놓은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이라는 원고를 공개

작품 속 단어 해설

모모 — 아줌만 밥을 해 주고. 아줌마가 해 주는 음식은 맛있어. 특히 **게필테 피쉬**.

로자 — 송어 요리는 토요일에만 먹는 거야. **유태인의 안식일**에.

게필테 피쉬(Gefilte fish) 유대교 가정식의 전채요리 중 하나로 잉어나 송어 고기에 양파, 계란 등을 섞어서 만든 생선 요리이다. 일년 내내 즐겨먹는 음식이나 특히 안식일이나 유대교 휴일, 유월절 등 유대교 명절에 챙겨먹는다.

유태인의 안식일 보통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유태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한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밤하늘에 3개의 별이 보일 때까지를 안식일로 정의한다. 샤바트(Shabbāth)라고 부르며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율법가운데 하나이다.

모모 — **멕툽**! 제길! 존댓말 어려워.

멕툽(مکتوب) 아랍어로 모든 것은 정해져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거나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

모모 — **맘 도시츄**! 지긋지긋해! **젠장! 홀레라!**

맘 도시츄(Mam dosy) 폴란드어로 지긋지긋해 또는 집어치워 등을 의미한다.

홀레라(Cholera) 폴란드어로 ‘빌어먹을!’, ‘젠장!’ 등 분노를 표현하는 감탄사.

로자 — **보세 무이**! 하느님! 저 놈이 돌아구나!

보세 무이(Bo e mój) 폴란드어로 영어 ‘Oh My God’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모모 — …그 놈이 아줌마를 데리고 살다가, **유태인들을 모아 끌고 갔던 자전거 경기장으로 보내버린 것이다.**

벨디브 사건 모모가 이야기하는 사건은 벨디브 사건을 말한다. 벨디브는 벨로드롬 디베르(Vélodrome d'Hiver)이라는 파리 제15지구에 위치한 경륜경기장으로, 1942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프랑스 경찰이 13,152명의 유대인들을 일제 검거한 뒤 경기장 안에 수용한 사건을 말한다. 수용 당시에 물이나 식량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화장실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들 중 12,884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져 많은 이들이 학살당했다.

로자(유태인이자 유대교 신자)와

모모(아랍인이자 이슬람교 신자)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두 사람이 믿는

종교(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 뿌리만

같은 뿐 지켜야하는 율법이나 교리가

다르기에 서로 배척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태인 이주자들과 원주민인 무슬림

아랍인들 사이의 유혈충돌을

시작으로 1948년부터 1973년까지

네 차례의 중동전쟁으로 대립하고

현재까지도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모모 — 케이크는?

로자 — 먹었지. **에클레어**. 멋진 하루였어.

에클레어(éclair)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로, 길쭉한 모양의 슈 페이스트리에 다양한 크림으로 속을 채우고, 겉면에 초콜릿 등을 입혀 만든다.

프랑스 지명 설명

샹젤리제(Champs-Élysées) 파리를 관통하는 센강 북서쪽에 위치한 파리 최대 번화가

피갈(Pigalle) 파리 북부에 위치한 구역으로 많은 공연장과 카바레 극장, 사창가로 유명하다. 유명 콘서트장인 뒤펅 드 몽드(Divan du Monde)와 카바레 극장 몰랑루즈(Moulin Rouge)가 위치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르망디(Normandie) 프랑스 본토의 13개 구역 중 하나로 파리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에서 20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영국해협과 맞닿아 있다.

베르사유(Versailles)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곳으로, 루이 14세부터 프랑스 혁명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프랑스 왕국의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다. 17세기말부터 18세기에 걸쳐 지어진 부르봉 왕조의 호화스러운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블롱델(Blondel) **고도 드 모루아**(Godot de Mauroy) **레알**(Les Halles) **생 드니**(Saint-Denis) **라 트뤼앙드리**(la Truanderie)

프로방스(Provence) **프로쇼**(Frochot) 파리 시내에 위치한 작은 골목길들로 세느 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모모 — ...할아버지는 아는 것도 많아. **메카**에도 다녀오셨고, **니스**에도.

알제리의 수호성인도 안대...

메카(Makkah) 과거에는 Mecca로 표기했으나 번창하는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되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 현재의 표기로 변경되었다.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도시이자 이슬람의 성지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디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슬람 3대 성지로 꼽힌다.

니스(Nice)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 접해있는 고급 휴양도시. 이탈리아 국경에 근접해있는 도시이다.

알제리의 수호성인 수호성인은 카톨릭 교회나 그리스도 정교회 등에서 신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인이나 성녀를 자신의 보호자로 받들고,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아 그 성인과 함께 신께 기도를 드리는 존재이다. 원작 소설에는 ‘시디 압델라만’과 ‘시디 우알리 다다’가 알제리의 수호성인으로 등장한다.

유세프 카디르 — **유태인 율법에 맞는 음식**을? **유대교 성년식**도 치르고?

내 아들 모하메드가 유태인이 되었다고요?

유태인 율법에 맞는 음식 흔히 알려진 이슬람교의 할랄(HALAL)과 비슷하게 유대교에서도 코셔(KOSHER)라 부르는 자신들의 율법에 맞는 식재료를 사용한다.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돼지 뼈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어류, 갑각류, 조개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유대교 성년식 남자는 바르미츠바(Bar Mitzvah)라 부르는 성년식을 만 13세에, 여자는 바트미츠바(Bat Mitzvah)라 부르는 성년식을 만 12세에 치른다. 종교적으로 책임 있는 성인이 됨을 기념하는 날로 결혼식과 더불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여긴다.

로자 — **인살라**... 난 편안하게 죽을 거야...

인살라 이슬람 교도들이 흔히 쓰는 관용구로 ‘오직 신의 뜻대로’라는 의미이다.

자기 앞의 생에서 주인공이자 화자의 역할을 하는 모모는 자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 모모는 나이도, 이름도, 민족도 불분명한 아이이다. 오래전부터 모모를 거둬 기른 로자에 따르면, 모모는 열 살이었다가 열네 살이 되고, 모하메드였다가 모세가 되며, 무슬림이었다가 유대인이 된다. 이 소설에서 모모의 정체성은 로자의 이야기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 문제는 로자가 하는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녀의 기억은 이미 퇴행중일 뿐만 아니라, 기억은 기억하고 싶은 대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삶의 근거가 희박하고 그 근간이 희미하므로, 모모를 지탱하는 것은 환상이다. 모모의 유아기적 환상 속에서, 주변의 여성인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모를 사랑한다. 여자들은 대개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나 폰돈을 주면서 마치 모모 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모모의 환상을 산다. 또 자신과 같이 살자고 모모를 꺾어내면서 어머니에 대한 모모의 환상을 자극한다. 물론 모모는 달콤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현실의 어머니인 로자를 배반하지 않는다. 다만 어머니라는 존재를 매개로 가족 환상을 지어낼 뿐이다.

어린아이가 지어내는 환상은 주로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다. 가족은 환상의 대상이자 발단이다. 가족에 대한 욕망을 발현하고 가족을 둘러싼 환상을 구축한다. 아이는 친부모, 특히 친아버지를 부정하고, 그에 대한 환상을 품으며,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모모는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는다. 자신이 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모모의 가족 환상에는 자신의 근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여타 가족 이야기들과 다르다. 다만 모모는 세상(진짜 가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소외시키고, 로자(가짜 가족)에게 무의식적으로 집착한다.

로자는 동네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창녀의 자식들이다. 모모의 세상은 로자를 중심으로 한 가짜 가족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짜 세상에서 모든 어머니들은 창녀이기에, 로자와 자신의 친어머니, 주변의 여자들은 모두 창녀여야 한다. 어머니를 창녀로 삼는 점에서 모모의 가족 환상은 사생아 이야기의 전형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모가 만들어낸 사생아 환상의 근간과 형식은 기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모모를 비롯하여 로자의 아이들은 창녀인 어머니를 부정하지 않으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끼니를 챙겨주고 똥을 치워주는 로자에게만 의존할 따름이다. 그렇기에 여기저기 똥이 널려 있는 로자의 집은 모모가 긍정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이지만, 문제는 그녀가 그 집을 떠나려 한다는 것이다.

가족에 결부된 게 아니라면 세상은 훨씬 덜 복잡했을 것이다. 애초에 진짜 가족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생의 비밀(모모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모가 어머니를 되찾는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 로자의 '구멍'이 그러한 불가능성을 입증한다. 구멍은 애초에 로자에

불가능한 가족, 가능한 환상

자기 앞의 생에
나타나는
가족 환상*에 대하여

이광진_중앙대 유럽문화학부 교수

*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공상적 표현을 가리키는 용어로, 가족공상 또는 가족 로맨스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해 기획되었다. 오래전부터 로자는 세 들어 사는 건물의 지하실에다 피난처를 마련해놓고, 밤마다 그 작고 누추한 구멍(이른바 ‘유태인 구멍’)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곤 했다. 이는 노망난 로자가 거리의 여자 시절로 돌아가거나, 독일의 프랑스 점령기 시절로 돌아가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로자의 몸과 마음이 완전한 퇴행을 시작한 것이다. 로자는 삶의 부침과 전쟁의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형태로 과거 회귀를 꿈꾼다.

모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로자를 되살릴 방법을 모색하다 결국 그녀를 그 어두운 구멍으로 데려간다. 로자의 퇴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녀의 은신을 자발적으로 돕기로 한 것이다. 거기서 로자는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자고 있는 아이처럼 영원한 잠에 빠져든다. 모모는 그녀 옆에 몸을 누이고, 자신의 시간 역시 거꾸로 돌린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아마 어머니 자궁 속에 숨어 있던 시절일 것이다. 로자의 유태인 구멍은 모모에게 있어 ‘어머니의 구멍’ 즉, 모태(母胎)다.

모모의 모태 회귀는 로자의 퇴행 현상과 죽음의 상황을 흉내 내는 것이다. 때문에 혹자는 이러한 행위가 죽음의 충동에서 비롯된 자살 시도와 유사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모모의 회귀 체험은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선택적 환상의 일부일 뿐, 죽음과는 무관하다. 자살 충동은 대개 멜랑콜리[❖]라는 심리적 요인을 전제하거나 동반한다. 또한 멜랑콜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의 세계를 절대적이라 여기고 거기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모모는 자기 내면세계에 갇히거나 치우쳐 있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자기 앞의 생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모가 남성인물들(카츠, 은다 아메데, 왈름바, 자음 형제)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모의 세계가 비단 로자로 대변되는 모성의 세계로만 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밀 할아버지와 의 대화를 통해 모모가 어떤 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삶과 관계,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하밀 할아버지 덕에 모모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적절한 거리를 둔다. 말하자면, 어머니 만들기로 시작해서 어머니 구멍에서 끝나는 모모의 환상은 가망 없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음울하고 음험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모와 로자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것이다. 모모의 모태 회귀 행위는 로자의 죽음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 자기 앞의 삶을 상상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시도이며, 일종의 ‘추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모모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통과 의례를 거친 어린아이는 삶과 타협하게 된다. 즉, 모모의 추도 작업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타협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 구멍에서 모모는 신의 약속(이라는 심리적 타협)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신은 성스러운 로자로 하여금 처녀의 몸으로 모모를 잉태하게 하여, 천사 같은 하밀 할아버지가 예언한 것처럼 위대한 시인을 탄생케 한다. 처량하기도 험난하기도 한 모모의 유년기는 아이의 성장통이 아니라, 시인의 수난(Passion)이었던 것이다. 동굴에 매장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처럼, 모모는 어머니의 구멍에 스스로를 유폐했다가 삼 주 만에 부활한다.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으로써, 비로소 앞으로의 생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하밀 할아버지가 예언한대로 언젠가 모모는 니스에 갈 테고, 진짜 책을 써서 빅토르 위고 못지않은 작가가 될 것이다).

흔히 환상은 환상이기에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 한다. 환상은 애초부터 가족이라는 헛것에 근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만큼 헛된 것처럼 보인다. 친어머니는 오래전에 죽었고, 아버지 또한 갑자기 죽으면서 모모의 가족은 재결성될 수 없으며, 모모가 꿈꿔온 가족 역시 로자의 죽음으로 인해 재형성될 수 없다. 즉, 모모에게 환상은 현실의 삶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자 버팀목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모모는 존재불가능한 가족의 대안으로 그럴싸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어둡고 아득한 어머니의 구멍에서 자신만의 환상을 실현한다. 그렇기에 환상은 피보다 진한, 가족보다 절절하고 진실한 무엇이다.

❖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의 일종으로 ‘우울’이나 ‘슬픔’에 해당된다.

로맹 가리는 왜 에밀 아자르가 되었나

백선희_프랑스문학 전문 번역가

한 작가에게 단 한 번만 수여되는 공쿠르 상을 두 번 수상한 유일한 작가가 로맹 가리다. 그는 로맹 가리라는 이름으로 쓴 『하늘의 뿌리』로 한 번,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출간한 『자기 앞의 생』으로 다시 한 번 공쿠르를 수상했다. 문학사에서 두 번 다시 없을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

지금은 리투아니아 영토가 된 러시아의 빌니우스에서 로만 카체프로 태어난 그는 프랑스로 귀화해 1935년(24세)부터 로맹 카체프라는 이름으로 몇 편의 단편을 발표했고, 첫 소설 『죽은 자들의 포도주』(1937)를 썼지만, 이 소설은 뒤늦게 사후에 출간된다. 그 후 전쟁 동안 쓴 소설 『유럽의 교육』(1945)부터는 로맹 가리라는 이름으로 펴냈는데, 이 작품이 대중적 성공을 거두면서 로맹 가리는 화려하게 문단에 등장했고, 『하늘의 뿌리』(1956)로 공쿠르 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서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바라보는 비평계의 시각은 선명하게 둘로 갈렸다. “독자의 의식 깊이 다양한 울림을 불러일으키는 교향악 같은 소설”이라거나, “재능, 독창성, 밀도, 힘찬 필력을 모두 갖춘 작가”라는 극찬이 쏟아졌는가 하면, “재능 빼고 모든 것이 엇보이는 작품”이라느니 올바르지 못한 프랑스어를 구사한다는 혹평도 쏟아졌다. 『유럽의 교육』은 그가 전쟁 중에 죽은 폴란드 조종사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작품이며 『하늘의 뿌리』는 알베르 카뮈가 교정을 본 작품이라는 헛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런 와중에 소설은 공쿠르 상이 발표되기도 전 3개월 만에 1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자전적 소설 『새벽의 약속』(1960)이 또다시 눈부신 성공을 거두면서 로맹 가리는 전설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유독 그에게 인색한 평론가들은 혹평을 고집했다. 이후 거의 매해 출간되는 작품마다 잘 팔렸지만, 그는 이미 분류되고 판결이 끝난 작가가 된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 그에게 씌워놓은 얼굴에, 자신의 이름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는다. 죽기 몇 달 전에 구술한 마지막 인터뷰 『내 삶의 의미』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한다. “비평가들은 하나같이 내가 단 한 권의 책의 저자로 그칠 거라고, 두 번 다시 『유럽의 교육』 같은 수준 높은 작품을 쓰지 못할 거라고 결론을 내버렸고, 이로써 작가 로맹 가리를 매장해버렸지요.”

하여, 로맹 가리는 모든 선입견, 모든 분류를 벗어난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

1974년, 소설 『그로 칼랭』을 탈고한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을 꾀한다. 예전에 가명 출간을 시도했다가 너무 일찍 정체가 발각된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출판사까지 속이기로 작정한다. 『그로 칼랭』은 신인작가가 거쳐야 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고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반응은 놀랍도록 뜨거웠다. 가리의 작품마다 혹평을 쏟아내던 어느 비평가는 “시와 다름없는, 새롭고 엉뚱하고 기발한 언어”라며 아자르의 작품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베일에 가려진 작가의 정체를 두고 몇몇 중진작가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나 로맹 가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가명 출간을 아직 생각지 않고 작품을 쓰던 중 책상 위에 펼쳐둔 원고를 본 주변인물이 그것이 로맹 가리의 작품이라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이는 “로맹 가리는 그런 작품을 쓸 능력이 없다”



고 잘라 말했고, 또 어떤 이는 “가리는 볼 장 다 본 작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언했다. 로맹 가리는 관객이 되어 자신의 두 번째 삶을 지켜본다. 꼼꼼한 독자라면 아자르의 글에서 로맹 가리와 동일한 감수성과 문장, 인물을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짐작조차 못하는 걸 보며 그는 통쾌해 한다.

에밀 아자르는 그 해 바로 르노도 상(Le Prix Renaudot) 수상후보로 떠올랐고, 로맹 가리는 서둘러 수상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이 가면극을 거기서 그만두지 않았다.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무섭도록 왕성한 창작력을 발휘하며 두 이름으로 동시에 작품을 펴냈다. 1975년에는 아자르의 두 번째 소설 『자기 앞의 생』과 로맹 가리의 『이 경계를 넘어서면 당신의 승차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가 서점 진열대에 나란히 놓였지만 누구도 두 작품의 저자가 한 사람이라고 짐작하지 못했다. 열 살 꼬마가 주인공인 전자는 눈부신 재능으로 빛났고, 성적 쇠락으로 괴로워하는 60대 남자가 주인공인 후자는 무기력한 늙은 작가의 비애를 드러내는 듯했다. 아자르는 여러 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고, 가리는 7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자기 앞의 생』은 파리 문단을, 그리고 곧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신비의 작가 배역을 맡아 줄 얼굴이 필요했던 로맹 가리는 5촌 조카 폴 파블로비치를 내세웠고, 폴은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이해 공쿠르 상 심사위원들은 『자기 앞의 생』을 수상작으로 발표했고, 같은 작품을 수상작으로 꼽고 있던 르노도 상 심사위원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작품을 찾아야 했다. 원칙상 공쿠르 상은 한 작가가 두 번 수상할 수 없기에 로맹 가리는 폴을 시켜 수상을 거절하는 편지를 쓰게 했다. 그러나 공쿠르 아카데미는 “공쿠르 상은 탄생이나 죽음처럼 거부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쿠르 상을 수상한 에밀 아자르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서 기자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폴 파블로비치의 이름과 이력이 밝혀지고 로맹 가리와 인척관계가 드러났다. 이때부터 로맹 가리가 에밀 아자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자 그는 추적을 따돌리려고 에밀 아자르의 세 번째 작품 『가면의 생』(1976)을 토해내듯 보름 만에 써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조카 에밀 아자르의 목소리로 삼촌 로

맹 가리를 맹렬히 비난했다. “가리는 멍청이에 늙어빠진 사기꾼이고 가짜 레지스탕스 대원이며 위선자다. 그의 모든 것이, 정말이지 모든 것이 가짜이고 허세고 지어낸 것이다. 그는 내가 자기 조카라는 이유로 내 영예를 훔쳐 자신이 내 책들의 저자라는 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진짜 개자식이고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작자다.”

이런 따돌리기에 속아 넘어간 이들은 이듬해 로맹 가리가 『여자의 빛』(1977)과 『영혼 충전』(1977)을 출간하자 그가 천재 작가인 조카를 질투하고 모방하려 한다고 수군댔다. 그런가 하면, 로맹 가리의 작품을 정말 좋아해서 제대로 읽은 이들은 로맹 가리가 에밀 아자르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작품에서 찾아냈다. 그러는 사이 폴 파블로비치는 점점 그의 통제를 벗어나 진짜 아자르 행세를 하려 들었다. 그의 가면극은 위태로워졌고, 아자르라는 이름마저 참신함을 잃은 듯했다. 1978년, 매해 빠짐없이 책을 출간해온 그는 상당히 진척된 작품 『솔로몬 왕의 고뇌』의 집필마저 중단하고 어느 이름으로도 책을 내지 않았다. 이즈음 이미 그는 가면극의 피날레를, 죽음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일까 1979년 2월 에밀 아자르의 마지막 작품이 될 『솔로몬 왕의 고뇌』를 출간하고, 3월 21일에는 에밀 아자르에 관한 모든 비밀을 밝히는 글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을 탈고했다. 이해 9월엔 그의 전처 진 세버그가 자동차에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1980년 초, 그는 로맹 가리의 이름으로 출간될 마지막 작품 『연』을 출판사에 넘긴 뒤, 라디오 캐나다를 위해 마지막 자전 『내 삶의 의미』를 구술했다. 그리고 더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1980년 12월 2일, 로맹 가리는 생제르맹데프레의 레카미에 레스토랑에서 클로드 갈리마르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비 내리는 파리 거리를 홀로 걸어 박(Bac) 길 108번지의 집으로 돌아온다. 오후가 저물 무렵, 그는 붉은 실내복으로 감싼 베개에 머리를 대고 침대에 눕는다. 그리고 권총을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긴다.

1981년 6월 30일, 로맹 가리의 5촌 조카이자 에밀 아자르로 알려졌던 폴 파블로비치는 『우리가 알았던 그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7월 3일 TV 프로그램 ‘아포스트로프’에 출연해 진짜 에밀 아자르는 자신이 아니라 로맹 가리임을 세상에 폭로한다. 7월 17일, 로맹 가리가 죽기 며칠 전에 출판사로 발송해둔 텍스트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이 출간된다. 이로써 7년 동안 무성한 추측과 소문을 낳았던 ‘아자르 사건’은 종결되고, 파리 문단은 전설적인 작가 로맹 가리만이 아니라 혜성처럼 떠오른 천재작가 에밀 아자르도 함께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로맹 가리는 소설가라는 직업을 “마법사”로 정의한다. 그는 현실을 바꿔놓는 상상의 힘을, 소설의 마법을 믿었고, 소설로 세상을 홀리고 싶어 했다. 호메로스, 단테, 세르반테스, 톨스토이 등 이미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마법사들의 뒤를 이어 “마법사 부족이 한 번도 세상에 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마법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마법사들』의 주인공의 외침은 바로 작가 자신의 외침으로 들린다. 그가 에밀 아자르로 다시 태어나려 한 것도 그의 소설들이 세상을 홀리는 힘을 잃은 것 같아서였다. 공들여 써낸 그의 소설에 비평가나 독자가 다 안다는 듯 식상한 눈길을 던지고 만다는 느낌이 들자 그는 마법의 지팡이를 크게 휘둘렀던 것이다. 이번엔 새로운 인물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지어내는 마법을 부린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이름을 바꾸자 세상은 다시 그의 소설에 홀렸다. 그런데 그 마법이 힘을 다하고 더는 세상을 홀릴 재주를 부리기 힘들 것 같아지자 늙고 지친 소설가는 펜을 접고 삶마저 접었다.



김정란_무대·소품 디자인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

출신과 종교 어느 하나 비슷한 것 없는 이들의 공통점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버림받은 것들의 조합은 또 다른 그림을 만들어낸다. 버려져 짝이 맞지 않은 가구와 물건들로 얼기설기 어우러진 공간은 마치 로자와



모모 그리고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만의 집을 만든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들 사이에 이뤄진 또 다른 모습의 가정. 이는 사회에 둘러싸인 이들의 모습과 같다.

무대는 영성하고 조잡하지만 따뜻한 그들만의 공간과 꼭 막힌 콘크리트 벽들 사이에 경계와 확장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원작—로맹 가리 Romain Gary (필명_에밀 아자르 Émile Ajar)

프로필 _ 14페이지

각색—자비에 제이아르 Xavier Jaillard

프로필 _ 2페이지

연출—박혜선 Heo Seon Sunny Park

프로필 _ 5페이지

번역—길혜연 Kil Hai-yon

대본 번역 <빛의 제국>

저서 <마음은 천천히 그곳을 걷는다> <프랑스 문화 예술, 악의 꽃에
서 샤넬 NO.5까지>

역서 <프루스트와 함께하는 여름> <날씨의 맛> <아파트 공화국> <사
랑은 끝나지 않았다> <따뜻한 소금>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적
욕망> <나눔> 외

무대·소품—김정란 Kim Jung-ran

연극 <신의 아그네스> <리얼게임> <피카소 훔치기> <만리향> <요정의
왕> <멘탈 트래블러>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우리의
여자들> <장수상회> 외 다수

뮤지컬 <파가니니> <1446> <레드북> <마이 버킷 리스트> <태일> <준도
우> <안녕! 유에프오> <라흐마니노프> <랭보> <여신님이 보고
계셔> 외 다수

조명—황종량 Hwang Jong-ryang

연극 <리얼게임> <피카소 훔치기> <타바스코> <황금연못> <나중>
<만파식적 도난사건> <억울한 여자> <오방선생> <M 버터플라
이> <안녕 마이 버터플라이> <선녀씨 이야기> <아내들의 외출>
<오셀로, 피는 나지만 죽지 않는다>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
건> <청춘예찬> 외

의상—김우성 Kim Woo-seong

대덕대학 공간디자인계열 코디네이션학과 교수

연극 <손님들> <피와 씨앗> <사물함> <나는 살인자입니다> <리얼 게
임> <2017 이반검열> <암전> <피카소 훔치기> <광장의 왕> <세
일즈맨의 죽음> <아버지> <어머니> <떠도는 땅> <하나코> <일회
공연> <상업극- 마카다미아, 표절, 메르스 그리고 맨스플레인>
<어느 계단 이야기> <총체적 난국-곡비> <삼국유사 연극만발-
남산에서 길을 잃다> <유리동물원> <오이디푸스> <레이디 맥베
스> 외

분장—이동민 Lee Dong-min

연극 <금란방> <호신술> <오셀로> <돼지우리> <냉면> <리얼게임> <공
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945> <혈맥> <함익> <실수연발>
<헨리3세-왕자와 폴스타프> <맘모스 해동> <아버지와 아들>
<벗꽃동산> <그 샘에 고인 말> <먼 데서 오는 여자> <줄리어스
시저> <즐거운 복희> <별자리>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보내
는 구소련 우주비행사의 마지막 메시지> <날 보러 와요> <과부
들> 외 다수

수상 2016 아시아 미 어워드 Best stage makeup artist award

음악—김철환 Kim Chul-hwan

연극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 <신의 아그네스> <돼지우리> <이른 봄
늦은 겨울> <3월의 눈>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 <벽속의
요정> <해변의 카프카> <열하일기 만보> <꿈속의 꿈> <엄마를
부탁해> 외

수상 2007 서울무용제 음악상

2004 서울무용제 음악상

음향—지미 세르 Jimmy Sert

연극 <엘렉트라> <처의감각> <1984> <손님들> <그을린 사랑> <꿈>
<엄마 이야기> <세일즈맨의 죽음> <하나코> <바르나르다알바의
집> <단테의 신곡> <홍준씨는 파라오다> <안티고네> 외

영상—정병목 Jung Byung-mok

연극 <룩멘틀> <나는 살인자입니다> <햄릿프로젝트> <봄날> <오월의
신부> <빨래> <빨>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배수의고도> <터미
널> <게임> <고제> <솔랑시울길> <편사인의 전사들> <인터넷이
즈씨리어스비즈니스> <크레센도공전> <히스토리보이즈> <사보
이사우나> <해야된다> <비행소년kw4839> <삼풍백화점> <노
란봉투> <차이메리카> <국부> 외 다수

조연출—박문수 Park Moon-su

연극 [연출] <그게 아닌데> <그 옷> <하지만 내꿈인걸> <가난 포르노>
[조연출] <오셀로> <할배동화>

만드는 사람들

출연

로자(더블 캐스팅) 양희경
이수미
유세프 카디르 김한
모모 오정택
카츠 의사 정원조

스태프

원작 로맹 가리(필명_에밀 아자르)
각색 자비에 제이아르
연출 박혜선

번역 길혜연
무대·소품 김정란
조명 황종량
의상 김우성
분장 이동민
음악 김철환
음향 지미 세르
영상 정병목

조연출 박문수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제작감독 임재호
무대감독 신승호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레이터 손은영
음향오퍼레이터 박정현
영상오퍼레이터 박상준
무대진행 최정환 김태용 장재우 박승화
의상진행 이경민
분장진행 최춘희

무대제작 쇼앤아트_대표 전계식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김종환
의상제작 Kostume_대표 김우성
소품제작 그루비_대표 배희태
소품디자인 어시스턴트 한효정
영상제작 레인포레스트_대표 박혜민
영상일러스트 송수빈
조명팀 김려원 임영민 전준우 정해인
김태균 김성관
음향팀 정혜지 손서연
영상팀 신동민 송인호
MR연주 유용렬_클래식 기타
권병호_하모니카 아코디언

조명장비협력 k라이팅_대표 김근재
(주)루스케이프_대표 강성기
마임지도 고재경
영문자막 번역·검토 이재은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건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오지수 이정민 김률
마케팅 김태은 최윤영 한나래 김효진
이송이 변정원

그래픽디자인 노운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봄봄_대표 김은총
홍보영상 602 STUDIO_대표 김영준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 프로젝트_대표 이영관
옥외광고 킨비즈, 오감
홍보물인쇄 미림아트

홍보사진 SUPA GROUND
연습·공연 사진 나승열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

프로그래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래인쇄 미림아트

티켓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하우스매니저 김수현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류혜민 백가현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혜빈 김민
주 임예은 손유희 권령아 김예진 박다연 박
선준 신혜주 홍정선 예한비 김주영 김지호
이신영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김옥경, 박성호
제작진행 이아름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경영고문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심소연 박성호 정채원 프로듀서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김효진 이승이 변정원 마케팅 | 오지수 이정민 김울 홍보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 김무석 기술감독 | 김승철 신승호 무대감독 | 음창인 이병석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최슬기 흥영진 무대제작감독 | 임채호 무대기계 | 박지수 무대상감독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복무·복지후생 | 정병욱 시설·안전관리 | 박예원 정보화·전산 | 최태영 경영기획·인사 | 김시내 예술감독 보좌 | 주현우 노무·자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2019 시즌단원

이수미 정원조 이종무 김한 주인영 장지아 양서빈 이원희 김수아 박경주 정세별 홍아름 임준식 이호철 강해진 박가령 조남용



이종무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알리바이 연대기〉



주인영

〈콘서트-동의〉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이수미

〈자기 앞의 생〉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정원조

〈자기 앞의 생〉
〈알리바이 연대기〉
〈한여름 밤의 꿈〉



양서빈

〈콘서트-동의〉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장지아

〈갈릴레이의 생애〉
〈빙화〉
〈한여름 밤의 꿈〉

2019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김한

〈자기 앞의 생〉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박경주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이원희

〈갈릴레이의 생애〉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정세별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한여름 밤의 꿈〉



홍아론

〈고독한 목욕〉
〈빙화〉
〈한여름 밤의 꿈〉



김수아

〈빠의 기행〉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임준식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스카팜의 간계〉



강해진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이호철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박가령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조남웅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립극단 02-3279-2259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안내 문의 1644-2003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
제작공연 최대 할인을 제공

남만이 갖든 명동예술극장과 서울역 뒤편 빨간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수준 높은 연극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곳.
이 공간을 찾는 여러분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우선 예약으로 나만의 좌석을 미리 선점하는 기쁨,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는 즐거움,
1년 중 한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까지.

국립극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구분	연회비(원)	혜택
친한 친구	5만원	혜택 40%할인 (진등급, 4매한)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2일전 유선예약) 극단 기념품 제공
좋은 친구	10만원	친한친구 혜택 포함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명동예술극장 기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회원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동예술극장

자기 앞의 생

2.22. — 로맹 가리 원작
자비에 제이아르 각색
3.23. 박해선 연출

갈릴레이의 생애

4.5. — 베르톨트 브레히트 작
이성열 연출
4.28.

고도를 기다리며

5.9. — 사무엘 베케트 원작
임영웅 연출
6.2. 극단 산울림 제작

콘서트-동의

6.14. — 니나 레인 작
강광원 연출
7.7.

스카팽의 간계

9.4. — 몰리에르 작
임도한 연출
9.29.

알리바이 연대기

10.23. — 김재업 작·연출
11.17.

한여름 밤의 꿈

12.4. —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
문삼화 연출
12.29.



2019년 국립극단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NTCK.OR.KR

병목안 가제

5.23. — 허선해 작
6.15. 김미란 연출

연출의 판 - 연출가전 김철승

10.11. —
11.3.

청소년극 해외신작

11.21. —
12.15.

소극장 판



백성희장민호 극장

고독한 목욕

3.8. — 안정민 작
서지혜 연출
3.24.

나는 살인자입니다

4.24. — 호시 신이치 원작
전인철 각색·연출
5.19.

뼈의 기행

5.31. — 백하룡 작
최진아 연출
6.16.

죽고 싶지 않아

8.22. — 류장현 안무·연출
9.8.

빙화

9.27. — 임선규 작
이수민 연출
10.13.

희곡우체통

희곡접수 상시
낭독회 8회 예정

북한현대연극

툏아보기

연출의 판 - 작업진행중

쇼케이스 4-5월

작품 개발 사업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쇼케이스 6월

한여름

밤의
작은극장 7월



*작품개발사업은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등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국립극단

고독한 목욕

젊은극작가전3
안정민 작

연출 서지혜

드라마부르그 정찬새
무대 신승렬 / 조명 김성태
의상 최원 / 음악 김서영
분장 정지호 / 소품 김혜림

출연 김동순 남동진 방승민
유성진 이종무 임준식
정재별 홍아론 박예찬

2019
3.8 - 3.24

백성희장민호극장

THEATRE PUNTIKET

국립극단 1644-2003
민타피크 1544-1555



국립극단 x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휴처명	내용	연락처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02-6004-7391
	샤오롱바오(10개) 제공 *기본메뉴 주문 시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789-2778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	02-778-6731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	02-779-7871
	세트 메뉴 주문 시, 프리미엄 로스트 원두커피(S) 또는 아이스커피(M) 1잔 제공	070-7017-6404
	매콤순살닭튀김小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13-1880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ntck.or.kr | 제휴문의 02-3279-2278

2009 토니상 최다 수상작!
연극부문 최우수작품상 · 연출상 · 여우주연상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연극

대학살의 신 神

GOD OF CARNAGE

2.16 ~ 3.24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원작 LE DIEU DU CARNAGE written by YASMINA REZA / 극본 아스미나 레자 / 번역 임수현 / 음악 · 드라마트버그 오세혁
연출 김태훈 / 무대 · 의상디자인 황지영 / 조명디자인 민선홍 / 분장디자인 백지영 / 음향디자인 지승준 / 소품디자인 최혜진 / 조연출 도현태

제작  신사킴퍼니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대요.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

